

배드민턴

10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이용대 체육관서 우승을” 이용대 영광스러운 도전

전국 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 출전

이용대(요넥스)가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관에서 뜻 깊은 우승에 도전한다. 이용대는 2010년부터 매년 7월 자신의 고향 전남 화순군에서 열고 있는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찾아 전국의 서툰 꿈나무를 응원해왔다.

올해는 학교대항선수권대회와 함께 화순 이용대 체육관에서 2018 전국 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용대도 소속팀 요넥스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한다. 11일 이용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이용대는 밝게 웃으며 유망주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또한 소속팀 동료들과 굵은 땀을 흘리며 자신의 경기를 준비했다.

이용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축된 ‘이용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 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매우 뜻 깊다. 항상 “배드민턴 선수로 내 이름을 건 대회가 매년 열리고, 이름이 걸린 체육관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영광이다”며 스스로 큰 자부심을 느껴왔다.

이번 전국 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는 총 13개 팀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을 치른다. 이용대는 단체전과 함께 요넥스 김대은과 조를 이뤄 개인전 복식에 출전한다.

화순 | 이경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 개막



1 이용대(요넥스)가 11일 전남 화순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린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다. 2 2010년부터 매년 꿈나무를 응원한 이용대는 올해 소속 팀 유니폼을 입고 직접 실력을 뽐낸다. 이용대를 비롯한 선수 및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실업대회를 포함해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대회에는 1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3 백석대 안진하(왼쪽)와 박설현이 경희대와 남자복식 경기에서 안정된 수비를 펼치고 있다. 화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제2의 이용대’는 나야!... 화순이 뜨거워진다

이용대의 고향 화순에서 9회째 열려 2010년 첫 대회부터 매년 요람 역할 올해 역대 최대규모 1800여명 참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이용대(요넥스)는 이효정(은퇴)과 함께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이용대는 중계 카메라를 향해 윈크를 하며 자신의 첫 번째 팬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2010년 7월, 이용대가 태어나고 배드민턴 라켓을 처음 잡은 고향 전남 화순군에서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시작됐다. 전국의 서툰 꿈나무들이 매년 여름

화순에 모였고 이용대를 직접 만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며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가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키웠다.

그동안 이 대회는 올림픽효자종목인 한국 배드민턴의 든든한 요람 역할을 하며 수많은 유망주를 배출했다. 이용대는 매년 학생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빨리 태극마크를 품고 세계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11일 전남 화순군 이용대 체육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참가규모를 자랑한다.

초등부는 총 56개팀 326명의 선수가 화순을 찾는다. 중·고등부는 103개팀 763명

이 ‘제2의 이용대’와 국가대표 선발을 꿈꾸며 코트에 선다. 대학부는 21개팀 128명이 참가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주최사 스포츠동아 송영연 대표는 “화순 출신으로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선수의 도전과 영광을 기려 2010년 시작한 이 대회가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 수많은 배드민턴 스타들이 배출됐다”며 “여러분 중에서도 올림픽에 참가하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건 제2의 이용대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참가 선수들을 환영했다. 대회를 후원하는 전남배드민턴협회 김영섭 회장은 “전국 최고의 시설인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와 이용대 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

춰진 이용대 선수의 고향 화순에서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대학부가 11일 예선을 시작해 17일 결승전을 치른다. 초등부와 중·고부는 18일 예선에 돌입, 단체전과 개인전이 24일까지 이어진다.

화순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11일 경기결과

- 2018 실업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전남 화순군 이용대체육관)
- 남자 일반부 단체전 1회전=김천시청 3-0 연봉, 수원시청 3-0 충주시청, 성남시청 3-2 요넥스
- 여자 일반부 단체전 8강=시흥시청 3-0 화성시청, 김천시청 3-0 영동군청, 포천시청 3-0 전북은행

●주최 : 스포츠동아·동아일보사 ●주관 :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후원 : 화순군·화순군의회·대한배드민턴협회·전남배드민턴협회·화순군체육회·화순군배드민턴협회



통풍성이 좋고 발이 편한 망사 신사화



특허받은 기능성 수제 키높이 신사화



- 황토 침기 발냄새 억제
- 세련된 디자인, 강한 투성
- 친환경 - 수작업 / 수제화



모델명 : V-1
색상 : 블랙
사이즈 : 245-275mm

키높이 신사화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7cm 더 키보이며 가볍고 발이 편합니다. 기능성 수제 신사화는 부드러운 고급 코팅소가죽 소재로 만들어 기존의 신사화보다 훨씬 가볍고 발이 편하고 황토를 첨가하여 악취발생을 억제시켜 더욱 위생적입니다. 인체공학적인 내부 설계로 보행시 신발 내부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밀착과 맞닿은 점지력을 증가시켜 발목에서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완벽한 착화감과 외형을 갖춘 영국형 정통 수제 신사화입니다.

소가죽에 우레탄코팅과 황토침가로 위생적이며 통풍성이 우수하고 착화감이 좋습니다.

우수한 품질, 빠른 배송, 확실한 A/S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름에는 황토제화 망사신사화!

장인의 솜씨로 한 땀 한 땀 꼬아만든

황토발 천연코팅소가죽 망사신사화

HWANGTOBAL SUMMER SHOES

한시적
특별할인가
39,800원

(2결제 주문시 무료배송)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

제품하자시 6개월 무상 A/S



● 모델명 : V-13(블랙)



● 모델명 : V-14(블랙)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mm

NAVER 검색하기 진수테크쇼핑 등 추천으로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 전제품 2결제 이상 무료배송